

동절기 안전 운전

눈길과 빙판길, 바람과 강추위로 점철되는 깊은 겨울이면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긴장하게 되는 계절이다.

여행중 생각치 않던 눈을 만난다거나, 새벽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하고, 브레이크 라이닝이 얼어 붙거나 도어가 얼어 열리지 않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 운전은 어느 계절에 비교해도 악조건하의 기상에서 도처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안전 운전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눈이 내리는 날

-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을 사용한다.
- 삼이나 모래(승용차의 경우 5홉들이 모래주머니 2개 이상), 마대, 작업용 장갑 등 월동장구를 휴대한다.
- 급가속·급제동·급핸들·과속 등을 피해야 한다.
-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되도록 다른 차량이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 정지 거리가 매우 길어지므로 적설량에 따라 최고 속도의 20~50%를 감속하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감속시킨 다음에 풋



브레이크를 몇번 밟아 속도를 조절한다.

- 눈길에서는 마찰 저항이 적어 출발시 자꾸 미끄러지게 되므로 이때는 기어를 2단으로 하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절반쯤 당겨두고 서서히 출발하는 것이 좋다.
- 주행시의 기어는 2단 또는 3단으로 하고 구동력을 크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
- 만일 미끄러지게 되면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스핀을 방지한다.

● 눈길에서의 주행이나 오르막길 등에서는 앞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정도 확보해 미끄러움에 방지해야 한다.

● 체인을 설치할 때는 전륜 구동차는 앞바퀴에, 후륜 구동차는 뒷바퀴에 장치한다.

(2) 추운 곳에 주차할 때는

● 주차중 라이닝이 얼어 붙어서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핸드 브레이크의 사용을 피한다.



● 차 둘레의 웨더 스트립 고무에 묻어있는 물방울이나 습기를 닦아 주어 도어가 얼어 붙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시동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 대부분 배터리와 연결된 배선의 접촉 불량에 원인인 경우가 많다. (클랙슨을 올려보면 소리가 적다.) 이 때는 배선을 다시 꼭 죄고서 시동을 걸어 준다. 그래도 시동이 안걸린다면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를 빌리거나 차체를 밀어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

● 배터리의 방전에 대비하여 부스터 케이블을 휴대한다. 부스터 케이블 사용 방법은 배터리의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연결하면 된다.

(4) 호스가 터지면

● 평소 라디에이터나 히터의 호스를 만져보아 수명이 다된 것은 즉시 교체하고, 주행시 누출되게 되면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감아준 후 라디에이터의 캡은 1단 열어주고 주행하도록 한다.

(5) 노면의 상태에 주의해야

● 다리 위라든가 터널 근처, 그늘진 강변 도로나 북쪽 도로는 결빙의 위험이 크다. 전날 비나 눈이 내렸다면 이러한 장소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커브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 동결된 노면은 그들이 젖을 때

매끄러운 감을 주며 겹게 보인다.

(6) 앞차의 주행 상태를 주시한다.

● 앞차의 주행 상태가 불안정하면 즉시 차간 거리를 넓혀주고, 미끄럽거나 동결된 곳을 회전할 때는 앞차가 완전히 돌아 나갈 때까지는 거리를 둔다.

● 앞차의 뒷부분이 흔들리거나 슬립하는 기색이 보이면 더욱 감속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7)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10~20% 정도 낮추어 노면에 접지력을 향상시키고 저속으로 운행한다.

● 전문 구동차는 앞좌석에, 후륜 구동차는 뒷좌석에 승객과 짐을 실어 무게를 많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